

공정 · 공경 · 찬탄 · 회향의 밝은 수행

‘하고 싶은 수행’ 전문가에게 묻다 ④ - 보현행원(普賢行願)

“출생으로서 천인 또는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인도 바라문도 된다(경집). 행위가 일체를 결정한다”는 부처님의 말이다. 출생신분과 관계없이 ‘오늘의 행동’이 핵심을 이룬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설한 10가지 보현행원은 단연 ‘원왕(願王)’이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행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보현행원의 원리는 무엇일까. 또 어떻게 수행하는 것일까? ‘행동 하나하나에 원을 세운다’는 보현행원(普賢行願). 광추현(42·경기도 남양주시), 박현수(41·경기도 일산) 씨가 6월 28일 10년 넘게 보현행원 수행법을 보급하고 있는 이종린(서울 홍익소아과) 원장을 찾아 ‘보현행원수행의 3노드’를 물었다.

#행동 하나하나에 원을 세우고
평소 <천수경> 기도를 해오다 최근 보현행원을 시작한 박현수씨, 첫 질문부터 직접적이다.
“보현행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수행이예요. 생명을 살려 주는 것이 보현행원의 요체죠. 그럼 생명은 어디서 자랄까요? 밝은 곳에서 자라요. 밝은 곳은 어딜까요? 공경, 찬탄, 공경, 회향이 있는 데가 밝은 곳이에요. 보현행원은 이처럼 밝은 수행이예요.”
박 씨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왜 보현행원을 합니까?”
“부처님행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부처님은 중생을 깨닫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예요. 일체 중생이 이미 깨달아 있음을 알려 오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에 원을 세워야 하겠죠? 그래서 보현행원을 해야 해요.”



이종린 원장(사진 왼쪽)이 박현수(가운데), 광추현씨에게 <회향경 보현행원품>을 설명해주고 있다.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말하세요
이번에는 광추현씨가 말문을 열었다.
“보현행원 수행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온갖 장애가 극복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돼요. 행원은 하는 것만큼 즉각적으로 공덕이 와요. 우선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며, 자신이 기쁨과 행복의 속에 잡히게 돼요. 또한 내 주위의

분들이 나로 인해 기쁨을 얻고 부처님 품에 들게 돼, 내가 바뀌고 다른 이도 바뀌며 더불어 이 사회가 바뀌게 돼요.”
“공경하면 자연히 하심이 된다”는 말에서 보현행원의 매력을 느꼈다는 광씨. 질문은 보현행원 수행의 장점으로 이어졌다.
“보현행원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삶 자체를 수행으로 만들죠. 그 자리에서 바로 저절로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요. 특히 보현행원은 배워서 하는 수행법이 아니예요. 중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요. 칭찬과 공경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 박씨가 구체적인 행법에 대해 묻자 이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우선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보현행원을 하려면, 소원을 세워야 해요. 소원은 누구나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갖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세요. 보현행원을 몰라도 그대로 부처님 공덕의 바다에 들어가게 돼요. 불자들은 나를 기쁘게 하려는 욕심을 내지 말고, 부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원을 가지면 돼요. 대상을 ‘나’에서 ‘부처님’으로, ‘욕심’을 ‘원’으로 바꾸면 돼요.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보현행원 수행의 핵심이예요.”

‘널리 바치고 섬겨라’ 감동과 충격

■ 이종린 원장은 이종린 서울 강서구 홍익소아과원장(51·사진)은 1994년 불혹의 나이에 ‘널리 바치고 섬겨라’는 ‘광수공양(廣修供養)’이란 <보현행원품>의 언급에 이르러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받고, 보현행원 수행을 시작했다. 불문에 처음 발을 내딛은 것은 지난 1974년 서울대 의과대 재학 시

절로, 이후 이 원장은 운허 탄허 청화 해암 스님 등 대선지식들을 친견, 구도의 길을 걸었다. 이 원장은 <실천 보현행원> 등의 저서를 펴내며 보현행원 수행법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02)2659-1035 cafe.daum.net/bohhyun



#준비가 필요 없다. 믿으면 된다.
잠시 후, 박씨가 보현행원 수행을 하기 위한 마음자세에 대해 물었다.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어요. 보현행원이 수행임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 형편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 생명으로, 살아가면 돼요. 사실 준비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황당해 하지요. 보현행원은 모든 것이 중생을 위한 삶으로 회향되고, 본래 불성이 이미 갖추고 있어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삶 자체가, 이 자리가 부처님의 참생명과 같음을 알면 그대로 수행인 거죠.”

광씨가 어렵게 한 마디를 던졌다. “보현행원을 하려면, 남들에게 뒤쳐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강경> 독경하는 사람들은 ‘한 호흡기간에 일득이 끝났다’며 자신의 수행력을 확인하는데, 저는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보현행원만 한다’고 생각하니, 늘 제자리에 맴도는 느낌을 받아요.”

“보현행원은 상호배타적일 수 있는 모든 수행법을 하나로 통합시켜요. 바로 법공양의 의미를 지닌 ‘여설수행공양(如說修行供養)’이 그것이죠. 여설수행공양은 참선, 염불, 관불 등 다양한 수행법들을 하나로 묶어 오로지 부처님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수행법은 우선 본인의 발전에는 기여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하지만 행원은 그 하나하나가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행원을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같은 수행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죠.”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늘 부처님을 기쁘게

■보현행원 수행 포인트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임을 아는 것이 보현행원 수행의 핵심이다. 가령 화두를 들어도, 깨달아 부처 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내 깨달음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들으면 화두 드는 것이 그대로 보현행원이요.

이런 보현행원 수행은 인정→삼귀의→<반야심경> <천수경> 독송→총원(總願)→<금강경> <보현행원품> 독송→별원(別願)→회향 발원 순으로 대략 1시간 정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총원은 공부의 기본방향을 정한 후, 극진한 공경과 공양의 마음을 독경으로 뒤야 나가기 위한 것이며, <금강경> <보현행원품>의 합송은 총원을 굳건히 해주기 위해서다.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4> 비구니 때문에 깨친 구지 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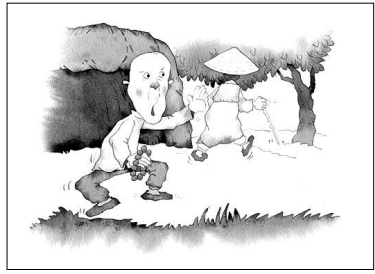
운현궁 근처에서 복지관계 일을 하는 비구니님이 종무소 오는 길에 들렀기에 차를 한잔 나누었다. 이런저런 복지관계 일을 어려움에 이야기하다가 무심코 니(尼)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 몇 마디 주고받게 되었다. 출가자이면서 여성 그리고 모성(母性)을 함께 소유한 까닭이다. 결론은 비구니는 너무 여자 같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인양 해도 안 된다는 거였다.

이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일제강점기 한(漢溪志開?-895) 선사와 말산요연(末山了然) 비구니와의 문답에서 정리된 바 있다. 말산에서 법을 펴고 있는 요연 스님이 비구니인줄 알고 관계 선사가 한번 보자고 하니 ‘남녀의 상은 아니다(非男女相)’란 대답이 돌아왔다.

어쨌든 이바라. 그래서 호기있게 ‘합!’을 한번 하고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어째서 변하지 않는 거요(云何不變去)?” 물으니 “귀신도 아닌데 무엇으로 변

있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그런 것은 모두 접어두고 날도 저물었는데 밥집을 가겠다고 하니 비구 이전에 ‘짜나이’ 입장에서 한마디 안할 수가 없다.

“날이 어두워졌으니 내일 해가 밝으면 떠나시지요.”
그래도 실제니(實際尼)는 똑같은 말만 거듭 반복할 뿐이었다. “바로 일러 주시면 하룻밤 묵고 가겠습니다.”
망신살 뺏치네. 꿀 먹은 벼어리마냥 만일 그 니(尼)는 뒤도 안돌아보고 가 버렸다. 구지 선사는 그날 이후 얼마나 분심이 났던지 이를 악물고 용맹정진 하였던다. 얼마 후 대 선지식 천룡 선사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한마디’를 청하였다. 이에 천룡 선사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 하나를 치켜세울 뿐이었다. 그 순간 구지 선사는 깨



어마 그 때 다년간 사람이 비구였다면

법거랑 청한 비구니에게 말한마디 못하고 망신 분심 일으켜 이 악물고 용맹정진 해 안목 열려

하리오(不是鬼神 變乎?)라고 대꾸한다. 비구랍시고 비구니 회상에 가서 한마디 했다가 남다른 분별상에 빠져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그순간 한 생각 풀이됐고 그 수업료로 삼년동안 그곳에서 농장을 돌보주는 원주 소임을 자원하게 됐다.

구지 선사는 비구니 덕분에 깨치게 된 경우라 하겠다. 그는 천태산의 토굴에서 혼자 정진했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실제(實際)라는 비구니가 찾아와 사탕을 쓰고 석장을 든 채 선사 주위를 세 바퀴 돌고서는 말했다.

“바로 대답하면 이 사탕을 뱉겠습니다.”
복색이거니와 그 내뺄는 질문도 듣는 비구로서는 고약하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그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다. 기분이 별로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비구 비구니를 떠나 ‘법다이’ 한마디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 비구니는 그냥 가려고 했다. 인목 없는 비구 옆에 더 있어봐야 시간남 비라는 실망한 표정이 사탕 속에 감추어져

똑같은 경우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정도 분심을 일으키는 못했을 것이다.

어쨌거나 사탕 쓰고 석장 짚고 느닷없이 나타나 스트레스를 주고 사라진 그 니 덕분에 다시 발심해 안목이 열렸으니 이는 제대로 된 만남인 셈이다.

뉘니뉘니 ‘비구니 여류’의 압권은 동산 양개 회상의 회상에서 있었던 일일 것이다. 선방앞에 웬 비구니가 와서 큰소리로 말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마초성향의 비구들은 그 소리에 혈압 좀 올라갔을 것이다.

만약 신라 땅에서 유학 온 성질 급한 ‘경상도 비구’가 그 곳에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좌복을 박차고 죽비 들고 쫓아나갔을 것만 같은 어투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내 자식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상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즉답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다. 묵묵부답. 결국 동산 선사가 대신 한마디를 해야만 했다.

“나도 그대에게서 태어났다.”
■원형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 조 화 벽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호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전지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인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한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대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제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예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원상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天氣道場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으로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효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